

전주 탄소소재 산단, 환경영향평가 통과

2022년까지 동산·고량동 일대 2000여억 투입... 시, 5월 중 국가산단 지정·승인키로

전주시가 조성중인 탄소소재 산업단지가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하면서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위한 9부 능선을 넘어섰다.

시는 최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했다고 19일 밝혔다.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오는 2022년까지 전주시 동산동과 고량동 일대 약 20만평(66만㎡)에 2,000

여억원을 투입해 약 70여개의 기업체와 10여개의 R&D시설, 20여개의 지원시설이 들어설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 중에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승인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일반산업단지 아닌 국가산업단지로 지정되면 △동부대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 240억원 △탄소

산단 내 저류시설 70억원 △폐수처리 시설 설치 60억원 △용수공급시설 30억원 등 총 400억원 이상의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 산단 조성으로 인한 전주시 재정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뿐만 아니라, 동부대로와 국가산단을 연결하는 진입로 개설시 육교개로를 추진하는 등 교통편의 개선과 함께 동부대로까지 연결되는 전주시 서쪽의 남북을 연결하는 간선도로망 축이 완

성됨에 따라 산업단지의 주변 지역을 이용하는 차량들의 물류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4월로 예정된 국토교통부의 심의를 거쳐 5월에는 국토교통부의 산업단지 지정·승인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이후, 올 하반기부터 보상계획 공고, 토지 및 지장물 조서 작성, 감정평가 등 본격적인 보상을 위한 절차 이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전주시 신성장산업본부 관계자는

“전주 탄소소재 국가산업단지 지정 계획이 그간 환경영향평가 협의로 인해 지연되고 있었으나,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와의 긴밀한 협조체제로 국가산업단지 승인에 한 발짝 다가섰다”며, “이제는 전주시의 발전을 견인할 수 있는 탄소관련 기업과 앵커기업 유치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인 만큼 기업유치 전략을 수립해 탄소관련 기업뿐만 아니라 지역발전을 이끌 수 있는 앵커기업을 전주에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음식창의도시 정책 태국에 전수된다

태국 총리부 산하 DASTA 의장·총국장 등 전주 방문

전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성공사례가 태국에 전수된다.

시는 19일 태국 총리부 산하의 DASTA(지속 가능한 관광정책국) 의장과 총국장 등이 전주시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정책을 배우기 위해 전주를 찾았다고 밝혔다.

DASTA 이사회 의장 등으로 꾸려진 방문단은 이날 유네스코 창의도시 사업 추진 노하우와 관광자원 등을 배웠다.

이번 방문은 태국 내 도시들의 유네스코 창의도시 지정을 위해 선진지의 도시를 방문하고 그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추진됐다.

방문단은 한국전문문화재단에서 전주시 홍보동영상 시청하고 유네스코

창의도시 추진 사업들에 대해 청취했다. 또, 한국전문문화재단에 구축된 전주음식모형 전시실과 전주한식 자료실, 시루방, 홍보관 등의 시설을 둘러봤다.

Mrs. PRISNA PONGTADSIRIKUL 태국 DASTA 이사회 의장은 “유네스코 창의도시 선도 도시로서 전주시의 수많은 사업 추진과 그 결과가 매우 인상 깊다”라며 “전주시의 수많은 문화 자산과 이를 지키고 보존하는 방식을 눈으로 직접 보게 돼 뜻깊은 시간이었던 만큼 태국의 여러 도시들이 유네스코 창의도시에 도전함에 있어서 많은 자원으로 활용 가능할 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다.

/송효철 기자



전북대학교병원 내 불자회 회원들이 병원발전금을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병원발전기금 2000여만원을 전달했다.

“지역민 건강증진·어려운 이웃에게 자비 베풀고파”

전북대병원 불자회, 병원발전기금 2000만원 기부

전북대학교병원(병원장 조남천)은 병원 내 불자회 회원들이 병원발전금을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어려운 이웃에게 자비를 베풀기 위해 병원발전기금 2000여만원을 전달했다고 19일 밝혔다.

전달식은 병원내 2층 한벽후회에서 조남천 병원장 이승욱 기획조정실장, 전북대병원교차협의회장 김원(신장내과) 교수와 송광사 총무스님인 상경

스님 등 병원관계자와 불자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2010년 창립된 전북대병원불자회의회는 매주 ‘환우와 함께하는 법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불자들이 심심일만 모든 보시금을 모아 형편이 어려운 환우를 위한 치료비 후원은 물론 자원봉사, 호스피스 활동 등을 펼치고 있다.

전북대병원불자협의회의장을 맡고 있

는 김원 교수는 “이번 후원을 통해 병원 발전을 통한 지역민의 건강증진과 아픔을 겪고 있는 환우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조남천 병원장은 “불자회 회원들이 내년 어려운 이웃과 병원발전을 위해 보내주시는 정성과 사랑에 깊이 감사하다”며, “보내주시는 기금은 병원발전과 형편이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소중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태 기자



덕진구 '스포츠스태킹 봉사단' 회원 20여명은 지난 18일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태킹 강습 봉사활동을 펼쳤다.

‘몸 튼튼!... 마음 튼튼!...’

덕진구 스포츠스태킹 봉사단 지역아동센터에서 봉사활동

전주시 덕진구(구청장 양연수) ‘스포츠스태킹 봉사단(단장 육대수)’ 회원 20여명은 지난 18일 덕진구 관내 솔로몬, 프란치스코, 전미, 로템나무, 푸른초장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태킹 강습 봉사활동을 펼쳤다.

스포츠스태킹봉사단은 덕진구와 함께 2017년부터 ‘몸 튼튼! 마음 튼튼! 지역아동센터 스포츠스태킹 교실’을 운영하였으며 올해도 매일 첫째, 셋째 주 월요일에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대상으로 스포츠스태킹 경기방법 및 예의범절 등을 가르치며 아이들과 교감하는 시간을 갖는다.

스포츠스태킹이란 12개의 컵을 쌓고 내리면서 경쟁하는 기록 스포츠로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게임에 빠져 지

내기 쉬운 요즘 아이들에게 온라인 게임중독을 예방하고 집중력과 성취감, 친구들과의 친밀감을 심어주고자 봉사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연말에는 덕진구 관내 지역아동센터 아동을 한곳에 모아 개인별, 센터별 단체경기를 펼치는 대회도 가질 계획이다.

스포츠스태킹 봉사단의 육대수 단장은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열의를 가지고 봉사에 참여해준 회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며 “1년 동안 아이들의 스포츠스태킹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봉사활동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정경순 덕진구 가족청소년과장은 “연세가 있음에도 배워서 다른 사람을 위해 재능을 기부한다는 것이 존경스럽다. 시니어의 사회경험과 전문능력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뜻깊은 시간이 될 것이며, 지역아동센터 아동들이 즐겁고 활발하게 지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송효철 기자

전주시 드림스타트, 4월부터 치과의사회와 아동 구강검진 추진

전주시와 전주시치과의사회가 치아건강관리가 어려운 저소득층 아동들의 치아건강을 함께 돌보기로 했다.

전주시 드림스타트는 오는 4월부터 전주시 치과의사회(회장 김종배 하안치과 원장)와 함께 드림스타트 아동들의 구강검진 및 치료를 위한 ‘2019년 치과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9

일 밝혔다.

시와 치과의사회는 이 사업을 통해 드림스타트 아동들을 대상으로 구강검진을 실시한 후 7세 이하의 유치는 불소도포를 년 1회 실시기로 했다. 또, 올해부터는 초등 고학년 대상으로 영구치 4,5번 홈 메우기를 1인당 8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송효철 기자

검·경 공조 1년간 전주 조폭 3개 조직 33명 검거

29명은 범죄단체 활동 등 혐의 징역 최대 4년형

검찰과 경찰의 공조로 전북 전주 조폭조직 3개 조직에서 33명이 검거됐다.

전주지검과 전북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1년간 집단폭력 등 폭력사건에 연루된 전주 조폭조직 3개 과 33명을 모두 기소하고, 2명을 추적중이라고 19일 밝혔다.

이들 중 29명은 범죄단체 구성·활동과 특수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에서 4년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또한, 4명은 1심 재판 중 이다.

전주 월드컵과 5명은 지난해 4월 17일 새벽 전주 시내 한 주점에서 나이프와 9명과 여성 합석 문제를 사비기 불자 서로 흥기와 야구방망이를 들고 폭력을 행사하다가 검거됐다.

오거리과 8명은 지난해 6월 3일 길

거리에서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민을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같은 조직인 3명은 지난해 6월 6일 조직 탈퇴 의사를 밝힌 조직원을 야구방망이로 때린 혐의를 받았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검·경이 긴밀한 협력을 통해 민생침해 범죄인 조폭조직범죄를 엄단했다”며 “앞으로 조폭 세력을 근절해 시민 생활 안전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강석훈 기자

“현직 도의원, 완주 공원묘지 건설사 주식 보유 ‘사실’”

참여자치전북연대, 수사 촉구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가 전북 완주 호정공원 개발사업 유착 의혹을 받는 현직 도의원이 관련 건설업체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수사를 촉구했다.

전북연대는 19일 성명을 통해 단체에서 추가로 조사한 결과 A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직접적인 이해 당사자라는 것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A의원이 호정공원 개발사업과 관련해 건설업체 3곳 중 2곳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A건설의 지분이 2만 6476주(지분율 16.54%), B건설의 지분이 4만 2510주(지분율 18.81%)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지방선거에서 후보자 재산신고에서 위의 건설업체 2곳의 주식 보유사실을 누락해 신고했다”며 “최근 관련 업체 1곳에 대해서만 검거결정신고를 함으로써 A의원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참여연대는 주장했다.

전북연대는 “관련 의혹에 대해 A의원의 명확한 해명과 전북도 감사실이 A의원의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항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호정공원 개발사업의 민·관·정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사법당국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강석훈 기자

국제영화제 한국경쟁 본선 발표

제20회 전주국제영화제 공식 경쟁부문 중 하나인 ‘한국경쟁’의 본선 진출작이 발표됐다.

19일 전주국제영화제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5월 2일부터 11일까지 전주 영화의 거리 일대에서 열리는 제20회 영화제의 공식 경쟁 부문인 ‘한국경쟁’ 부문 본선 진출작 10편이 선정됐다.

올해 한국경쟁 부문에는 총 104편의 작품이 출품됐다. 이 중 국영화 8편, 다큐멘터리 2편 등 10편이 최종 선정됐다. 선정작 중 국영화는 ‘굿바이 썸머’(감독 박주영), ‘넵프시콜(가게)’(감독 정혁기), ‘리메인’(감독 김민경), ‘애들만터 시티’(감독 라주형), ‘목창’(감독 심해정), ‘이정’(감독 정승오), ‘파도를 걷는 소년’(감독 최창환), ‘흩어진 밤’(감독 김술, 이지형)이다.

다큐멘터리는 ‘다행(多行)이네오’(감독 김송미)와 ‘이타미 준의 바다’(감독 정다운)가 뽑혔다.

이번에 발표된 한국경쟁 본선 진출작 10편은 5월 2일 열리는 제20회 영화제에서 대상 등을 놓고 경합을 벌이게 된다.

/뉴스스



전북경찰청 시민경찰 간담회

공동체 치안 활성화를 위한 시민경찰 연합회 간담회가 개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19일 전북 시민경찰 연합회 및 시·군 임원 등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민·경 협력치안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시민경찰의 다양한 의견 수렴을 통해 치안정책 추진에 반영한다는 취지다. 이날 열린 간담회는 시민경찰 활동을 모은 동영상 시청 및 토론과 감사장 수여식이 진행됐다.

간담회 전북경찰청장은 “생업에 종사하는 1년 바쁜 가운데도 불구하고 취약지역 야간 합동순찰활동, 청소년 선도활동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해준 시민경찰들에게 감사하다”며, “전북경찰도 도민들이 평온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공경 받는 치안활동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의 다양한 치안 문제를 경찰의 노력만으로 완벽히 해결하기는 부족하기에 협력치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공감해 했다”고 덧붙였다.

/강석훈 기자

술집서 휴대전화 훔친 30대 검거

술집에서 휴대전화를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완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오(35)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1일 오후 10시 48분경 전주시 완산구 한 술집에서 피해자 B오(32)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서 14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순간 욕심이 나서 그랬다”고 진술했다./강석훈 기자

음식점 턴 30대 덜미

잠금장치를 해제하고 음식점에 침입해 현금을 훔친 3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군산경찰서는 19일 절도 혐의로 A오(34)씨를 불구속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22일 오전 3시 39분경 군산시내 한 음식점의 잠금장치를 해제한 뒤, 들어가 금고에 있던 현금 10만원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매장 내 폐쇄회로(CC)TV 영상자료를 분석해 A씨를 검거했다.

/강석훈 기자